

# 2019 년도 해외 단기 연수(C그룹) [ 2019 Mobile World Congress Shanghai참관 ]

2019. 7.



## I

## 출장 개요 및 세부일정

### □ 출장 개요

- 2019년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앞서 글로벌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관련된 기술, 서비스, 전략 등 다양한 키워드 체험
- 이동통신 산업 동향과 최신 트렌드를 파악을 통한 전파이용 기술·서비스 발전에 반영할 수 있는 업무활용 방안 모색

○ 출장 국가 : 중국(상하이)

○ 출장 기간 : 6. 25.(화) ~ 6. 29.(토), 4박 5일

○ 출 장 자 : 총 4명

그룹명	부 서 명	직급	사 원 명
C그룹	제 주 본 부	4급	성 정 민
	경 인 본 부	5급	최 재 호
	부 산 본 부	6급	하 승 기
	빛마루 방송지원센터	7급	이 지 호

### □ 주요일정

일자	출발지	도착지	업무수행내용	비고
6.25(화)	인천	상하이	○ 이동(인천 → 상하이)	항공편
6.26(수) ~6.28(금)	상하이		○ MWCS 참관 - 중국 3대 이동통신기기 및 단말, 혁신기술, 엔터테인먼트 등 모바일기술 개발 동향 파악 - Mobile, 5G, AI, 블록체인, 스마트시티, IoT, 4차산업혁명 분야 제품 관람	
6.29(토)	상하이	인천	○ 이동(상하이 → 인천)	항공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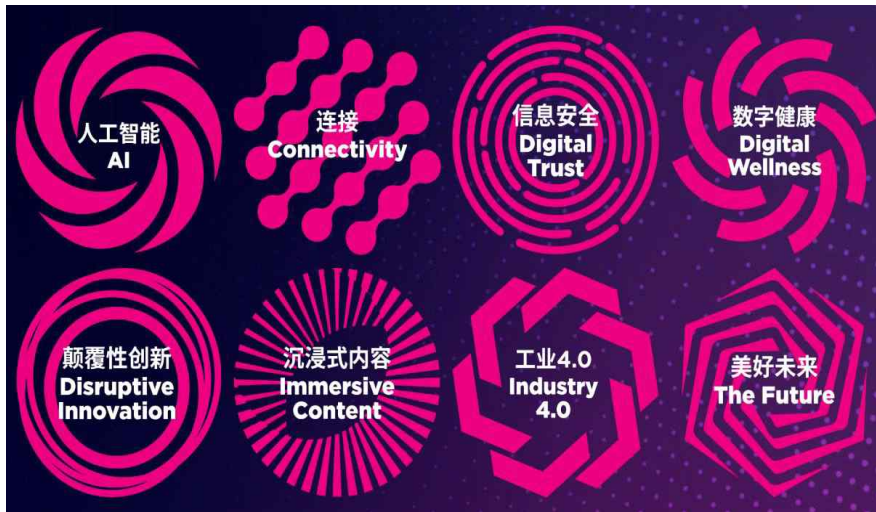
## □ MWCS 개요

- MWCS(Mobile World Congress Shanghai)는 세계통신사업자협회(CSMA)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하는 모바일 산업 및 콘퍼런스를 위한 아시아 최대의 박람회
- 2019 MWCS의 전시 및 이슈분야는 『지능적 연결성 : Intelligent connectivity』라는 8가지 분야의 주요 주제를 다루고 있음

## &lt; MWCS 2019 주요 주제(Themes) &gt;

- ① 인공지능 (AI) ② 연결성 (Connectivity) ③ 디지털 신뢰성(Digital Trust)  
 ④ 디지털 건강성(Digital Wellness) ⑤ 파괴적 혁신(Disruptive Innovation)  
 ⑥ 몰입형 콘텐츠 (Immersive Content) ⑦ 4차 산업 (Industry 4.0) ⑧ 미래 (The Future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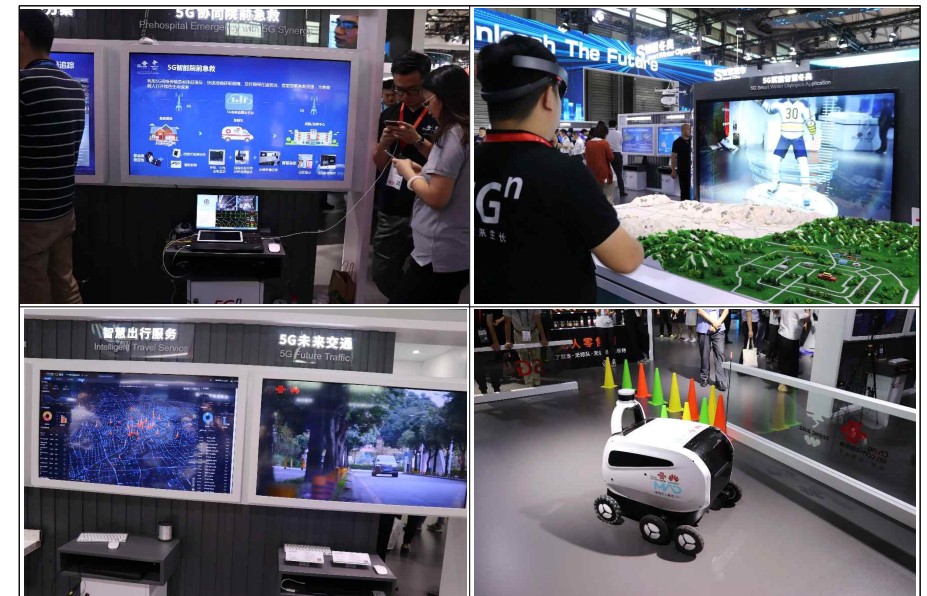
※5G, IoT, AI, Big Data, Autonomous Car, VR, AR, Cloud(Edge) 등



## □ MWCS 2019 참관

2019 MWCS 주요 내용 : 5G, IoT, AI, Big Data, Autonomous Car, VR, AR, Cloud(Edge) 등

- (중국 이동통신사) 5G통신을 활용하여 미래 사업 방향을 보여줌
- 5G시대의 응급구조에 대한 서비스가 시간 지연이 없고 끊김이 없다는 전제에서 여러 응급기관의 연계를 제안
- 2022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솔루션(가상현실, 증강현실)을 이용한 다양한 가상 체험 서비스 준비
- 5G는 융합과 연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마트시티, 공장, 도시 에너지, 교통 등의 시스템과 데이터 활용이 전제되는 서비스가 다양함
- 무인 자율자동차를 활용하여 배달 사업이 발달하였으며, 많은 기업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음



<차이나 유니콤 전시장>

- 5G is ON이라는 주제로 부스를 만들어 5G 라인업을 선보이며 시장 주도권 확보의 의지가 보임
- LGU+를 통한 5G 상용화 및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과 5G 상용화 협력 현황을 보여줌
- 전시장에서 1,200km 떨어진 공사 현장의 굴삭기를 실시간으로 원격조정하는 5G 초지연 서비스를 선보였음
- 8K 무선 중계 및 VR, AR, 스포츠, 공연 등의 영상을 지연없이 정확하게 나타남



<화웨이 전시장>

- MWC바르셀로나에 이어 보여준 원격기술 로봇과 응급구조(원격 의료도움) 등은 5G 대표적인 서비스임을 보여줌
- 차이나모바일에서는 5G 통신을 활용하여 사람 움직임에 따라 로봇이

동시에 움직이는 초저지연 시연을 보여줌

- 5G 통신을 활용한 원격 영상을 통한 교육시스템 구축을 보여줌



<차이나 모바일 전시장>

- 드론을 통한 4K 영상 전송, 클라우드 게임, AR, VR, 콘텐츠와 디지털 트윈, 무인 자율 주행 보트, 원격 운전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
- 5G 시대에 어플리케이션(VR), 항만에서의 물류·유통,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
- 아파트의 에너지, 보안(얼굴인식), 주차 등을 관리하며, 무인로봇을 활용하여 공장 사무실 등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현
- 5G 기반 증강현실(AR) 서비스를 물류, 제조, 광산, 공장, 교통 등 산업별 적용 사례를 보여줌



<노키아 & 에릭슨 전시장>



- 삼성은 Isocell, Exynos를 전시하여 이미지 센서와 프로세서의 탁월성을 보여줌
- 퀄컴은 5G 중국기업과의 지속적인 연결을 위해 모든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강조
- SK 텔레시스의 와이파이 안테나, 사물인터넷 적용을 위한 RoRa 서비스를 보여줌
- 얼굴을 인식하는 순간 사람의 개인정보가 스크린에 나타남, 다양한 곳에서 안면인식 기술이 적용됨  
(※ 중국은 개인정보보다 자신 국가의 안전은 중요시 여김)
- 클라우드 게임, 스마트홈, 가상현실을 통한 중계를 시청, 다양한 VR 기기를 선보이고, 스마트폰의 6400만 화소의 카메라 탑재

- 5G NR RF 및 애플리케이션 테스트, RF 매개 변수 및 데이터 처리 속도의 신호 측정 및 커버리지 테스트를 실시



<로데슈바르츠 전시장>

□ **글로벌 통신업체들의 최신 기술, 트렌드 전망 등을 파악하여 초연결 시대를 대비한 기관의 방송통신전파 관련 경영전략 파악 필요**

- 전파자원을 이용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통신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운송, 의료, 제조 등 모든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어 지속적인 혁신으로 인류의 가치를 창출할 것임
- 이번 MWCS 에서도 5G시대를 맞이하여 상호 발전을 위한 기업 간 협력이 트렌드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
-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5G 서비스 도입을 기점으로 통신뿐만 아니라 4차산업 혁명의 깃발을 내세우고 각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
- 모바일 세계 산업 미래 기술 및 전략을 파악하여 국내 4차 산업혁명 활성화에 필요한 전파정책 지원방안 및 KCA 신규 사업 발굴 필요
- ICT 신산업 분야에 지원되고 있는 정책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R&D 투자 등 기술개발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 정책 추진으로 다수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계기 마련